

경제

1. ④	2. ⑤	3. ⑤	4. ②	5. ④
6. ②	7. ④	8. ③	9. ②	10. ③
11. ⑤	12. ②	13. ①	14. ④	15. ③
16. ②	17. ①	18. ③	19. ②	20. ①

- ④ 욕구 수준이 동일하다면 희귀성이 낮아 존재량이 많은 C재의 희소성이 D재보다 낮게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희소성이 D재와 동일하다는 것은, 반대로 사람들의 C재에 대한 욕구 수준이 D재보다 크다는 의미이다.
①, ② 시장 가격은 재화의 유용성이 아닌 희소성에 의해 결정된다. A재와 B재의 희소성은 동일하다. ③ A재~D재 모두 희소성이 있는 경제재이다. ⑤ B재와 D재는 희귀성 수준이 같은데 희소성은 D재보다 B재가 크다. 이는 D재의 수요보다 B재의 수요가 큼을 의미하므로 시장 거래량이 D재가 많다고 볼 수 없다.
- ⑤ 을이 '형평성도 문제 해결 기준인가?'에 '아니요'라고 답한 A, B는 각각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C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이고, ㉠에는 '예'가 들어간다.
① 경제의 기본 문제는 모두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② 효율성은 모든 경제의 기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된다.
- ⑤ ㉠의 경우 A, B 관람의 가격 및 기회비용이 같으면서 선택의 편익은 A 관람이 크므로, 순편익 역시 A 관람이 크다. ㉡의 경우 A 관람의 가격은 B와 같지만 기회비용은 적다. 따라서 선택의 편익이 큰 A 관람의 순편익이 크다.
① A 관람의 명시적 비용은 영화 가격 1만 원이다. ② ㉡에서 A 관람을 위한 암묵적 비용은 아르바이트 임금 1만 5천 원이다. ③ B 관람의 기회비용은 ㉠에서 3만 5천 원이고, ㉡에서 3만 원이다. ④ ㉡에서 A 관람의 편익은 3만 원이고,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1만 5천 원) + 명시적 비용(1만 원)인 2만 5천 원이다. 따라서 순편익이 0보다 크므로 A 관람은 합리적이다.
- ㄱ.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 정책의 효과를 보여 준다. ㄴ. 전문 신고꾼들의 제도 약용이나 사회 불신 풍조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정책의 결과이다.
ㄷ. 포상금 지급 정책이 두 집단 중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비교할 수 없다.
- ④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P₂가 균형 가격이며, 이때의 거래량 100단위가 균형 거래량이다. 시장 균형점에서 거래될 때 사회적 잉여는 최대가 된다.
③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인 P₁에서의 최저 가격제는 실효성이 없다. ⑤ P₃에서의 최고 가격제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시장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과 일치한다.
- ㉠, ㉡이 예측한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의 예측

㉡의 예측

 ㉠은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보고 있으며, ㉡은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완전 탄력적으로 보고 있다.
- 갑국은 시장 경제 체제, 을국은 계획 경제 체제이다. ④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해 경제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 가격 기구에 대한 신뢰 정도는 계획 경제 체제가 낮다.
③ 시장 실패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상태이다. ⑤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는 어떤 경제 체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③ Q₂에서 Q₃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총비용과 총수입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입의 증가액이 총비용의 증가액보다 크므로 이윤은 Q₂보다 Q₃가 크다.
① A사가 생산한 것은 모두 판매되므로 총수입 증가액이 곧 시장 가격이다. ② 총비용의 증가액이 감소할 뿐, 총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④ 총비용 증가액과 총수입 증가액이 일치할 뿐, 총수입과 총비용 규모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이윤이 0이라고 볼 수 없다. ⑤ 1단위 생산이 늘어날수록 총수입의 증가분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총수입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
-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값보다 작으면(크면), 조세 귀착 정도는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높다(낮다). 갑보다 정이 조세 귀착 정도가 높으므로, ㉠은 2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병보다 을의 조세 귀착 정도가 높으므로 ㉡은 0.8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또한 을보다 정의 조세 귀착 정도가 높으므로, ㉢은 ㉠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수요 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갑 > 병 > 을 > 정 순서이다.
- A는 외부 경제이다. ㄴ.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균형 거래량은 적고, 균형 가격은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에 들어갈 수 없다. ㄷ. 외부 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ㄱ.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 발생한다. ㄹ. 소비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의 사례이다.
- ㄴ. ㉠로 인해 갑국의 순수출은 100억 달러 감소하고, ㉡로 인해 갑국의 순수출은 200억 달러 증가한다. 따라서 갑국의 순수출은 100억 달러 증가한다. ㄷ. ㉠로 인해 을국 GDP가 100억 달러 증가하고, ㉡로 인해 갑국 GDP가 200억 달러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 ㉡로 인해 두 국가의 GDP 총합은 300억 달러 증가한다.
ㄱ. ㉠로 인해 갑국의 소비 지출이 100억 달러 증가하지만, 순수출이 100억 달러 감소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갑국 GDP는 변하지 않는다. ㄴ. ㉠로 인해 갑국에서는 소비 지출과 순수출이 변동하고, ㉡로 인해 을국에서는 투자 지출과 순수출이 변동한다.
- 기준 연도인 2015년의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각각 100이라고 가정하면, GDP 디플레이터는 표와 같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실질 GDP	100	110	132
명목 GDP	100	120	144
GDP 디플레이터	100	(12/11) × 100	(12/11) × 100

 ②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된 물가 수준은 2016년과 2017년이 (12/11) × 100으로 같다.
 ① 2015년의 물가 상승률은 0%이다. ③ 2016년 경제 성장률은 10%, 2017년 경제 성장률은 20%이다. ④ 2017년의 실질 GDP는 2015년보다 32% 증가했다. ⑤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차이는 2017년이 2016년의 1.2배이다.
- ㄱ.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를 구입하는 것은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ㄴ. 미국 정부의 요구는 A국의 대미 환율이 적정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이었다.
ㄷ. A국 통화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것은 환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나타나는 무역 불균형은 A국의 대미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과도해지는 것이다. ㄹ. 미국 정부가 의도한 것은 A국의 대미 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 ④ ㉠가 '총공급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가?'이면 A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B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는 물가 수준과 실질 GDP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① ㉠가 '총수요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가?'이면 A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실질 GDP 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② 인플레이션의 유형

- 과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화폐 자산 소유자가 불리해진다. ③ ㉡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가?'이면 A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B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발생 요인이다. ⑤ 소비 지출 증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발생 요인이다.
- ③ 2005년 여자의 실업률은 (20/50) × 100이고, 2015년 여자의 실업률은 (22/66) × 100이므로 실업률이 하락하였다.
① 2005년의 경제 활동 인구를 100이라고 볼 경우 비경제 활동 인구는 50이므로 15세 이상 인구는 150이다. 2015년의 경제 활동 인구는 2005년 대비 10% 증가했으므로 110이 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20% 감소했으므로 40이 된다. ② 2005년에는 실업률이 40%이고, 2015년에는 30%이다. ④ 2005년의 경제 활동 인구를 100이라고 볼 경우 비경제 활동 인구는 50이므로 15세 이상 인구는 150이다. 2015년의 경제 활동 인구는 2005년 대비 10% 증가했으므로 110이 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20% 감소했으므로 40이 된다. 이 경우 2005년의 고용률은 (60/150) × 100, 2015년의 고용률은 (77/150) × 100이다. ⑤ 2015년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5년보다 10% 증가했으므로, 여성 실업자 수도 10% 증가했다.
 - 갑국이 실시할 재정 정책은 확대 재정 정책, 을국이 실시할 통화 정책은 긴축 통화 정책이다. ㄱ. 확대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다. ㄷ. 긴축 통화 정책의 사례로 재할인율 인상, 지급 준비율 인상, 국공채 매각 등을 들 수 있다.
 - ① 경상 수지 적자는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적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된다.
② 외국인의 갑국 기업 주식 구입액은 금융 계정으로 계산된다. ③ 경상 수지만을 갖고 대외 경상 거래액을 파악할 수는 없다. ④ 경상 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반드시 상품 수지도 흑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2017년 갑국의 경상 수지는 흑자이다. 경상 수지 흑자는 갑국 내 통화량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 A는 주식, B는 보통 예금, C는 채권이다. ③ 보통 예금은 주식, 채권에 비해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다. ① 주식 소유자는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 ② 유동성은 보통 예금이 가장 높다. ④ 보통 예금은 주로 간접 금융 시장에서 거래된다. ⑤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 상품은 보통 예금이다.
 - ㄱ. 회사 급여,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모두 경상 소득에 해당한다. ㄷ. 지출 항목 중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통신, 생필품 구입이다.
ㄴ.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연금 등의 공적인 납부액을 뺀 것이다. ㄹ. 회사 급여는 근로 소득, 예금 이자 및 주식 배당금은 재산 소득에 해당한다.
 -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그림과 같다.

 ① 을국은 X재 생산에 완전 특화하여 X재를 150개 생산한다. 따라서 교역 전 생산량의 두 배를 생산하게 된다. ② Y재의 경우 갑국, 을국 모두 최대 생산 가능량은 100개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절대 우위를 갖지 않는다. ③ 갑국은 Y재, 을국은 X재 생산에서 비교 우위를 갖는다. ④ 갑국과 을국 간에 X재 6개당 Y재 5개의 비율로 교역되었다. ⑤ 교역 전 갑국과 을국의 X재 생산량을 더한 값은 125개, Y재 생산량을 더한 값은 100개이다. 반면 교역 후 두 국가의 X재 생산량을 더한 값은 150개, Y재 생산량을 더한 값은 100개이다.